

10장. 우상과 그에 대한 심판

1. 우상과 하나님의 대조 (10:1-16)

10장의 전반부에서는 우상과 참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네 가지로 대조하면서 말한다. 첫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10:2-5) 여호와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다(10:6-7). 세상 나라는 모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장식하면서 섬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신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다.

둘째,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장식한 것이며, 나무로 된 우상의 훈계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나(10:8-9)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영원한 임금이시다. 그분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에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며 아무도 그분의 진노를 견딜 수 없다(10:10).

셋째, 우상은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신이고 ‘땅’과 ‘하늘’아래서 망할 것이나(10:11), 여호와와는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물이 생기게 하며 ‘땅’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10:12-13).

넷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우둔하고 무식하며 우상 제조자는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우상은 약속한 것을 줄 수 없고 여호와께서 징벌하실 때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10:14-15). 반면 여호와는 만물의 조성자이심에도 야곱을 기업으로 삼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10:16).

이러한 네 가지 대조를 통하여 헛된 우상을 섬기면 헛되게 되고 끊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될 것을 가르쳐 준다.

2. 우상 숭배를 심판하심 (10:17-25)

10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짐 꾸러미를 챙기라고 하신다. 그들을 약속의 땅 너머로 내던짐으로써 그들이 고난 중에도 포로 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포로에 관한 선언을 한 후에 애가가 뒤따른다(참조 4:19-21). 여기에서 ‘나’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자녀가 없다고 말하는 구절을 보면(20절)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어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장막이 훼파되었지만 자녀가 떠났으므로 장막을 세울 자가 없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멸망을 예고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목자는 미련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그 결과 양 떼가 모두 흩어졌다(10:19-21).

원수는 북방에서 내려오고,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어 시랑의 거처가 되었다. 그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된 것을 이러한 이미지로 표현한다(10:22).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은 걷는 자에게 달려 있지 않다고 인정한다. 자기의 길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중대한 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너그럽게 징계하실 것을 구한다(10:23-24).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방에 주님의 분노를 쏟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마친다. 하나님의 보복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어깨에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앗수르 제국의 부조.

묵상과 실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예레미야 10장 전반부는 여호와와 우상을 대비한다. 우상 숭배가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여러 곳에 우상을 지적한다(2:11-27; 5:19; 7:9). 그런데 10장에서 지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의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이사야서와 비슷하다(사 44:9-20).

20:2-16에서 우상과 여호와를 네 가지로 대조하면서 우상이 헛된 것과 여호와를 섬길 것을 강

조한다. 여호와를 대비하는 네 부분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람이 만든 우상과 대비하여 여호와는 능력과 지혜가 크신 분임을 강조한다. 6-7절에서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말로 여호와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고 맺는다. 사실 우상과 대비되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조되는 것을 허용하셨을 뿐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낮추어 주셨다. 자기 백성을 우상 섬기는 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둘째, 우상은 사람이 금과 은으로 정교히 장식하였으나, 오직 여호와는 참하나님이시고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진노하심으로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열방은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은과 금으로 그 우상을 장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셋째, 10:11-13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11절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만이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는 바벨론의 우상도 섬기고 있음을 함의한다. 둘째는 ‘하늘-땅-땅-하늘’ (11절)과 ‘땅-하늘-하늘-땅’ (12-13절)의 교차대 구적 구조이다. 이러한 대비로써 우상과 하나님이 대비되고, 우상은 하늘과 땅에서부터 온전히 사라지나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과 땅에서 드러날 것을 표시한다.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 우상이 아니다.

넷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분깃으로 소개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기업의 지파이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재하는 분이시지만, 야곱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참조 9:4)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능력과 지혜에서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가 찬송의 주제이다(10:6-7).

10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배우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2절)
2. 예레미야가 우상에 대해 ‘삼림에서 벤 나무,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 갈린 기둥’ 이라고 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을 3절에서 찾아 써 보십시오. (3-5절)
3. 1) 예레미야는 헛된 우상에 비해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이라고 합니까? (10절)
2)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까? (11-16절)
4.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헛되게 되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얻을 것입니까? (16절)
5. 예레미야는 열방과 이방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떤 자들로 묘사하였습니까? (25절)